

# 국제교류 활기 '글로벌 전주' 도약

### 국가별 대사관·문화원·항공사 등 상호 홍보 프로젝트 추진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방문 교류 러브콜 쇄도

전주시가 2017년 한해 동안 활발한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로 한걸음 도약했다.

시는 올해 그간의 일반적 행정 간의 교류를 벗어나 다양한 기관과 함께 상호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 펼쳐왔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들과 일반적 기관 간 교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교류를 중점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4월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는 모주와 비빔밥을 홍보했고, 전주시 홍보대사인 비보이 그룹 '리스트 포인'은 전주의 문화를 선보였다.

이들의 성과는 해외홍보에서도 눈에 띈다. 또한, 시는 지난 9월에는 세계적인 항공사인 영국항공과 전주시 국제영화제조직위와 손잡고 전주시 홍보

동영상과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 단편영화 5편이 전 노선에 소개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영국항공 사상 유례 없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우수한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전주시 문화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 한해 뉴욕타임스와 CNN, 페루 아메리카 TV, 중국 CCTV 등 세계 굴지의 언론들이 전주에 관심을 보였고, 이들이 직접 취재한 기사와 음식, 드론축구, 관광지 영상은 세계에 소개됐다.

이 외에도, 시는 전주를 한국의 문화중심도시로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SNS(www.facebook.com/globaljeonju)를 직접 운영하며, 한국 요리 동영상

인 '국제한식조리학교와 함께하는 맛있는 전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시는 또, 일본 가나자와, 이탈리아 피렌체, 중국 쑤저우 등과 함께 마라톤, 수공예, 바둑, 도서관, 박물관 관련 민관교류도 수년째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전주세계문화주간도 눈여겨볼 만 하다. 전주세계문화주간은 국제교류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취지의 행사로, 지난해 '프랑스 위크'에 올리는 '문화강국 영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만나다'라는 슬로건 하에 영국문화원과 함께 영국문화주간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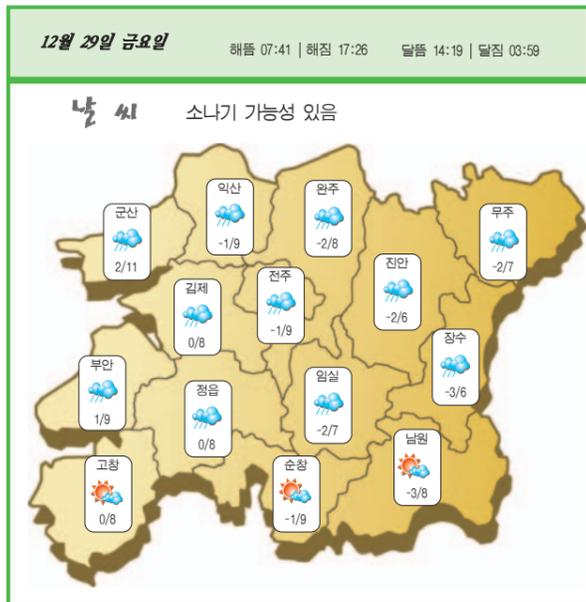
지난 5월 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영국문화주간에서는 영국의 서커스단 '아크로주'의 공연이 펼쳐졌고, 영국 작가 제인오스틴 서거 200주년 기념

북&필름 콘서트도 진행됐다. 또, 세계적인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인 '리치 맥코어'는 전주시의 관광지를 본인만의 작품으로 선보였고, 영국의 재즈밴드 '플러트리오'의 재즈 공연은 4000여 명의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에는 올 한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 대사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외신으로부터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라며 "전주시는 단순히 한국민의 문화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국 샌디에이고, 중국 쑤저우, 일본 가나자와, 터키 안탈리아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으며, 미국 호놀룰루, 중국 선양, 중국 창춘, 이탈리아 피렌체, 중국 시닝과 우호교류를 맺고 있다. 최근에는 차없는 도시의 선구자 스페인 폰테베드라,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알메티 예프스크 등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 교류지역 다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 “인재육성 중심기관 발전 이끌 것”

### 전북대학교 신입 사무국장에 이동호 전 강원대 사무국장



특히 강원대 재직 당시 구조개혁 업무에 집중해 D등급 해제를 견인한 경험을 살려 올해 진행될 대학 역량강화사업평가에 뒷받침하는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입 사무국장은 “소통과 협업, 그리고 외부 평가 대응 강화,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전북대가 교육서비스·기관운영 경쟁력이 강한 창조적 인재육성 중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무국장은 교육부 기초연구정책관실 인문사회연구과장, 학술연구지원과장을 비롯해 평생학습정책과장, 미래기획위원회 사회정책국장, 한밭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신입 사무국장에 이동호(56·사진) 전 강원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 사무국장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0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가까이 교육부 대학국과 국립대학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바 있는 이 사무국장은 특히 대학 교육행정과 정책 분야의 전문가다.

이 사무국장은 임기 2년의 개방형 사무국장으로 임명돼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학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용이하여 '성장을 넘어 성숙'을 지향하는 전북대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주아름유치원, 우수시설학교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아름유치원이 2017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아름유치원은 교육부 2017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유치원·특수학교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아름유치원(원장 김동파)은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874(구 만성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2학급 3세, 4세, 5세 183명의 원생으로 올해 3월 개원했다.

유치원은 동남쪽 U자형 교실 배치로 채광을 높이고 환방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 놀이공간과 잔디 마당을 중앙과 3세반 전면에 배치하여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교육부 2017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선정은 유치원·특수학교 부문 1작품, 초·중등학교 부문 6작품이 선정됐다.

/김민근 기자

## 전북대 세계로 쪽쪽... 중국 섬서성 명문대 방문

### 이남호 총장 등 섬서사범대 장안대·서북공업대 찾아 유학생 유치 방안 등 논의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김학용 기획조정본부장, 이교우 언어교육본부장 등은 지난 20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섬서성 서안시를 방문한 가운데 이 지역 재매대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견지해왔던 소위 '금한령'이 곳곳에서 해제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이에 발맞춰 對중국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에 따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김학용 기획조정본부장, 이교우 언어교육본부장 등은 지난 20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섬서성(·西陲) 서안시(西安市)를 방문해 이 지역 재매대학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북대 방문단은 이번 방문 기간에 그간 학생 교류 등을 지속해 온 섬서사범대학 청광수(程光旭) 총장을 직접 만나 교류 확대를 방안을 모색했고, 장안대학과 서북공업대학

등도 잇따라 방문해 대학 주요 간부들과 인·물적 교류 확대와 유학생 유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남호 총장 일행이 방문한 대학들은 '985, 211, 일류대학(一流大·)' 등 중국 중앙교육부가 인정한 프로젝트에 선정된 우수 대학들이다. 섬서사범대학은 중국 내에서

명문대학 교원양성 관련 우수대학이고, 장안대학은 교내 공청기술도 연구센터 및 실험실이 있을 만큼 공대(자동차분야)에 중점을 둔 대학이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엔 세계 이남호 설립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와 로스알라모스연구소, LED 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등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연구센터들이 세계적 연구경쟁력을 이끌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며 "중국 명문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와 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발전돼 우리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Now

##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학계 협력 대학평가 전국 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INC+) 선정